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76
----------	------

발의연월일 : 2025. 2. 3.

발 의 자 : 이용우 · 박해철 · 정혜경
김문수 · 박지원 · 이수진
김태선 · 김 윤 · 장종태
이광희 · 이강일 · 이학영
한창민 · 백승아 · 정진욱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 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 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